

| 격려사 |



노사정 모두에게 ‘넛지’ 역할 해주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후 해를 넘겨 비로소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면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성장시킬 ‘격월간 「사회적 대화」’ 창간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동계가 정말 어렵게 다시 ‘사회적 대화’의 장에 복귀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숙한 ‘사회적 대화’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모두에게 넛지(nudge,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 ‘2019년 4월 선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2019년 4월은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이후 건국 100주년, 1919년 4월 11일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 100년을 성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노사정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지면을 통한 노사정 소통의 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격월간 「사회적 대화」’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체뿐만 아니라 지면을 통해서도 노사정 소통의 장을 모색하려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위원회의 소식뿐 아니라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각계의 심도 있는 의견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창간이 노사정이 회의체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심층적인 의견을 보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더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학계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다뤄 단순한 기관지에 머물지 않고 노사정의 공감대 형성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창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보내며 노사정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지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노사정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해주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격월간 「사회적 대화」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시점에 지상(紙上)에서도 경제주체 간 소통의 장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여 년 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격월간 「사회적 대화」 창간은 이런 노력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노사정 간의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 소통의 마중물 역할 기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관지 ‘격월간 「사회적 대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노사정간 보다 더 원활한 대화의 장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지를 창간하였습니다.

앞으로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간 효율적 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잘 해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노사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목소리 담아 노사정 논의에 일조할 수 있기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늘 애써주시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지 8년 만인 지난 1월,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모두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및 노조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같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각한 경제양극화와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잘 꿰어진 만큼 앞으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장(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쪽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쪽의 동의가 필요하듯이, 노동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 바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대화」 창간이 그 단초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대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사회적 대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중대한 시기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온 노사정위원회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대한 시기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창간이 경제 참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남녀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교감의 터미널이 되어주세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격월간 「사회적 대화」’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 존중 사회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계급·계층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사회적 대화가 관건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긴 했지만 술한 난관이 첩첩산중입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때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소통과 교감의 터미널로 제몫을 잘 할 거라 믿고 기대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변되지 못한 사각지대 조명해 주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격월간 「사회적 대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은 일터의 균열이 뚜렷해지고 고용의 형태가 분화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집단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여러 사업장에 다양한 양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내지는 사회적 교섭으로 불리는 전략을 채택하여 운용해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청년 노동운동의 궤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사회적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담론 지평을 튼튼히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충실하게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대한 애정 어린 조명을 당부 드립니다.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는 용기 필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격월간 「사회적 대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봄과 함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노사정 대화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30년만의 호황이라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회적 타협이 절실합니다.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지지층을 잃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르츠 개혁’을 이끈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시장개혁특위 위원장의 조언입니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번번이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모습만 보여 온 우리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것은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는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소수의 대표자들이 얻을 것만 얻고 빠지는 것이 아닌, 보다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서 노동개혁의 모든 의제를 함께 올려놓고 양보와 타협으로 길을 찾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노사정간 소통의 역할 다해주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새로이 창간된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제고하고, 전문적인 의견 교환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노사정간 소통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IMF 외환위기 등 우리 경제의 고비 때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정치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문성현 위원장님 취임 이후 노사정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관심과 행보를 통해 사회적 협의의 기운을 높이고 계시어 사회적 기대가 모아지는 이때에 창간되는 ‘격월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중한 결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여타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며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7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경제적, 사회적 정책에 울곧게 반영되어 현실에 기반을 둔 노사정 협의가 이뤄지는데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격월간 「사회적 대화」’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